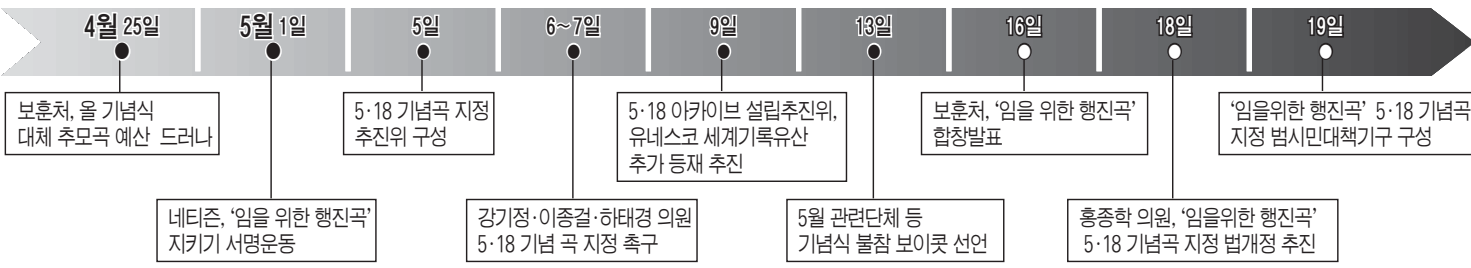


■ 입을 위한 행진곡 논란



'입을...' 기념곡 지정·제창 여전히 진행형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5·18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입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할 새로운 추모곡 예산을 편성하면서 촉발된 논란은 기념식이 끝난 이후에도 진행형이다.

특히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은 기념식 이후 '입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 추모곡으로 공식 지정하기 위한 시민기구를 만들고 법 개정 등 '역사 바로잡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정부, 별도 추모곡 제정 추진으로 논란 촉발=올해 '입을 위한 행진곡' 논란은 국가보훈처가 '입을 위한 행진곡' 대신 5·18 기념식에서 불릴 새로운 추모곡을 선정키로 하고 올 예산에 4800만원을 편성한 사실이 광주일보 취재결과 확인(4월25일자 6면)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정치권·시민사회단체·5월 관련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가보훈처의 '입을 위한 행진곡' 퇴출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회 정부위원회도 지난해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훈처의 예산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부실 심의로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며 '입을 위한 행진곡'을 독창했고 이종걸 의원은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정부를 비판했다.

반발이 끊이지 않음에도, 국가보훈처가 5·18 대체 기념곡 제정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정치권과 5월 관련단체·시민사회단체는 '입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추진대책위원회(가칭·이하 5·18 추진위)'를 구성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광주시의회가 국가보훈처를 방문해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와 관련한 정부의



5·18 33주년 기념식에 불참한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관련단체회원들이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광장에서 국가보훈처의 제창 거부에 강력 항의하며 '입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새 추모곡 예산 편성에 논란 촉발...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 추진

5·18추진위-홍총학 의원 "공식 추모곡 법제화"... 보훈처는 부정적

정책변화를 촉구하며 공식 기념곡 지정을 요청했다. 누리꾼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입을 위한 행진곡' 대체 추모곡 선정 예산 철회를 비롯, 5·18 기념식순 배치와 5·18 추모곡 지정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5·18 아카이브 설립추진위원회'는 '입을 위한 행진곡'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추가로 등재하겠다고 발표하고 보훈처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지난 16일 '입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순에 배치하지만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방식이 아닌, 합창단 공연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

다. 사실상 제창을 거부한 것으로, 5월 관련단체 대표들은 기념식 불참 보이콧을 선언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도 동참했다.

결국, 5·18 33주년 기념식은 각각 따로 치러졌다. 지난 2010년 이후 3년 만이다. 유족 등이 기념식이 열리는 국립묘지 앞에서 입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공식 추모곡' 법제화 움직임=5·18 추진위는 '입을 위한 행진곡'을 연내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 모든 추모객들이 내년 5·18 기념식부터 이 노래를 제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총학 민주당 의원은 '5·18민주항쟁'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해 '입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홍 의원은 "기념식에서 입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법제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이 노래를 5·18 기념곡으로 제창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국가보훈처는 향후 이 노래를 포함, 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5·18 기념곡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입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곡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박대통령 '입을 위한 행진곡' 함께 했다

강운태 시장 동참 요청에 태극기 들고 경청 "사실상 제창 이끈 것"

박근혜 대통령이 5·18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입을 위한 행진곡'이 불릴 때 태극기를 손에 들고 일어나 경청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에게 제창을 건의하고 태극기를 전달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선도적으로 제창을 이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18일 오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공항에 도착한 박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 공항 귀빈실에서 박 대통령과 잠시 자리를 함께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시민은 박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뒤 "대통령께서 기념식장에서 '입을 위한 행진곡'이 불릴 때 태극기를 들어주시면 국민대통합에 기여하실 것"이라고 부탁했다.

강 시장은 이어 "제가 태극기 2개를 준비하겠다"며 "하나는 대통령 것이며, 또 하나는 제 것"이라며 대통령이 '입을 위한 행진곡'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기념식장에서 '입을 위한 행진곡' 합창 순서가 되자 곁에 있어서 있던 강 시장을 돌아봤고, 강 시장은 미리 준비해뒀던 태극기 2개 중 1개를 박 대통령에게 건넸



지난 18일 5·18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장에서 '입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강운태 광주시장(가운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극기를 건네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경청했고, 대통령 옆자리에 배석해 있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 보훈처장 등도 자연스럽게 함께 일어서는 상황이 연출됐다.

강 시장은 "박 대통령이 '입을 위한 행진곡' 합창 시간에 태극기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사실상 대통령이 선도해서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이끈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기념식장에 들어서다 5·18 묘지 진입로에 이팝나무가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강 시장에게 "이팝나무가 좋은 데 참 잘

가꾸어져 있네요"라고 말을 건넸다. 이에 강 시장이 "임명직 시장 시절(1995년) 5월을 상징하는 나무가 없지는 않으나 전적으로 5월에 꽃을 피우는 이팝나무를 진입로에 심었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참 잘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팝나무를 좋아하며 이번 식목일에도 청와대 경내에 이팝나무를 심었다"고 소개했다.

강 시장은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이팝나무와 5월을 상징하는 이팝나무가 일맥상통하니까 그 정신을 함께 기리고, 그런 뜻을 언젠가 대통령께서 5월 유공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크게 기뻐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5·18, 아르헨 투쟁과 닮은 꼴... 왜곡 적극 대처"

2013 광주인권상 수상 이호스 마르코스 공동대표

아르헨티나의 인권단체인 이호스(H.I.J.O.S)의 카리 마르코스(사진) 공동대표는 18일 "5·18 민주항쟁"에 대한 이악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르헨티나 군사독재정부의 민간인 학살 역사와 너무 비슷해 놀랐다"며 "2013 광주인권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군부독재 시절(1976~1983) 실종·처형·투옥되거나 억압을 피해 망명했던 사람들의 자녀 등이 모인 이호스는 군부의 민간인 대량학살과 납치 등 인권유린 실태를 규명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인정받아 5·18 기념재단이 주관하는 '2013 광주인권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마르코스 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바른 역사 규명을 위해 국가 지

도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표는 지난 2005년 대통령 임명 선거가 끝난 학살에 가담한 군 고위 간부들을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사면, 다시 이들에 대한 법적 투쟁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표는 "한국에서 진실이 규명된 5·18에 대한 역사 왜곡 시도가 여전히 존재하듯 아르헨티나에서도 군부의 학살이 이미 재판 등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군측은 여전히 학살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두 군부 간 '전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에는 아직도 많은 학살희생·실종자 가족과 지인



이 있어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일반 시민, 가톨릭 사제, 교육기관 등의 연대와 지원 속에 역사 바로잡기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2013학년도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여러분의 못 다 이룬 꿈을 전남대 산업대학원에서 이뤄 드리겠습니다. 주경야독!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주1-2회, PM7-11)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36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 첨단기지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입학원서 작성	2013.06.10.(월) ~ 2013.06.14.(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2013.06.10.(월) ~ 2013.06.14.(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장구	2013.06.10.(월) ~ 2013.06.14.(금) 09:00~18:00
전형일	2013.06.28.(금) 10:00~
합격자 발표	2013.07.25.(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
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공학/농업개발학

문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allair.chonnam.ac.kr/~gi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대한생명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전로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30-경-26%로

정규직 사원모집

당사는 광주 삼성전자(주) 중, 대형 금형 수정/제작 전문 1차 협력업체로서, 2013년 물량증가 및 사세확장으로 인한 (광주 첨단2단지 내) 현지 공장 신설로 인하여, 참신하며 책임감 있으며, 근면 성실한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인원	자 격 요 건
금형사상 (조립/분해)	00명	- 초보 가능 / 관련 직종 경력자 우대 - 사출금형(중/대형) 유경험자 우대
CAD/CAM	00명	- 학력 : 무관
CNC M/C	0명	- 나이 : 21~45세 이하(공필 및 이에 준하는 신분)
CNC 방전	0명	- 관련부서 자격증소지자 우대
와이어컷팅	0명	- UG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CAD/CAM)
사	출 0명	-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3차원 측정	0명	- 식당 / 청소 : 나이제한 없음
식당/청소	0명	사내식당 유경험자 사내청소 경험우대/초보가능

● 근무지 : 광주 첨단2단지 내
● 기 간 : 총원서 까지
● 급 여 : 면접후 결정
● 구비서류 : 1) 이력서..... 1통
2) 사진..... 2매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건강진단서 1통
5)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복지혜택
- 4대보험, 상여금(300%), 퇴직금, 기숙사, 근속수당, 성과제 인센티브
- 사내식당(조, 중, 석, 야식제공), 생활축하금, 명절선물, 월회식비지급
- 연/월차,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 전형방법
- 전화 후 회사방문(면주 목, 금요일 14시 정기 면접) / 구비서류 지참
- FAX 및 E-mail 접수가능(yoool@naver.com)

(주) 신 흥 정 밀
TEL. 054-473-6697 FAX. 054-473-6698 H.P. 010-6309-2488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당일대출!

- ▶ 건물/상가 추가대출
- ▶ 아파트/주택 추가대출
- ▶ 전. 담. 나대지
- ▶ 공유지분/미준공건물
- ▶ 부동산 취득자금
- ▶ 사업자금

※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 1%~월 3% 최고 연 39% 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빌 116호
062)228-0114